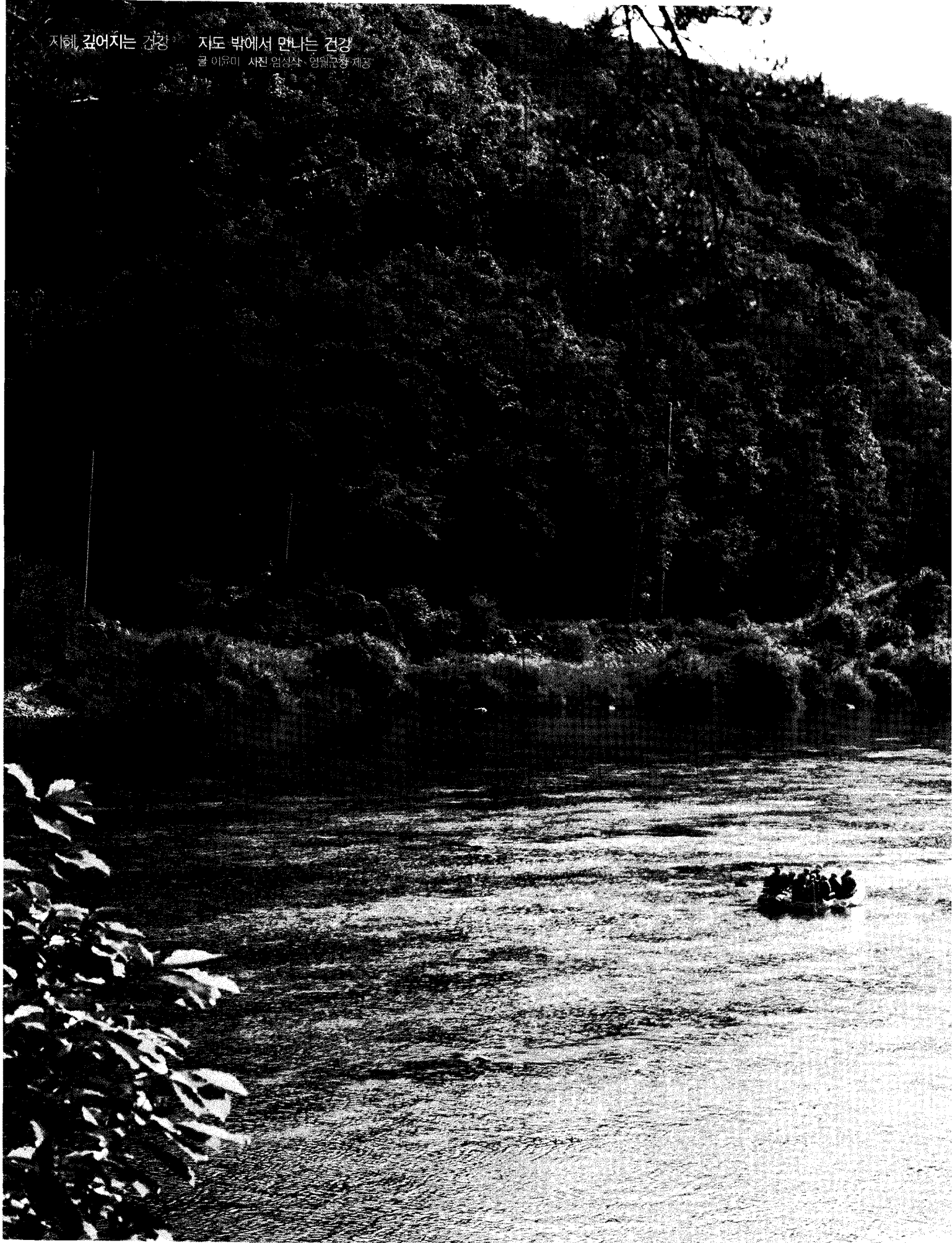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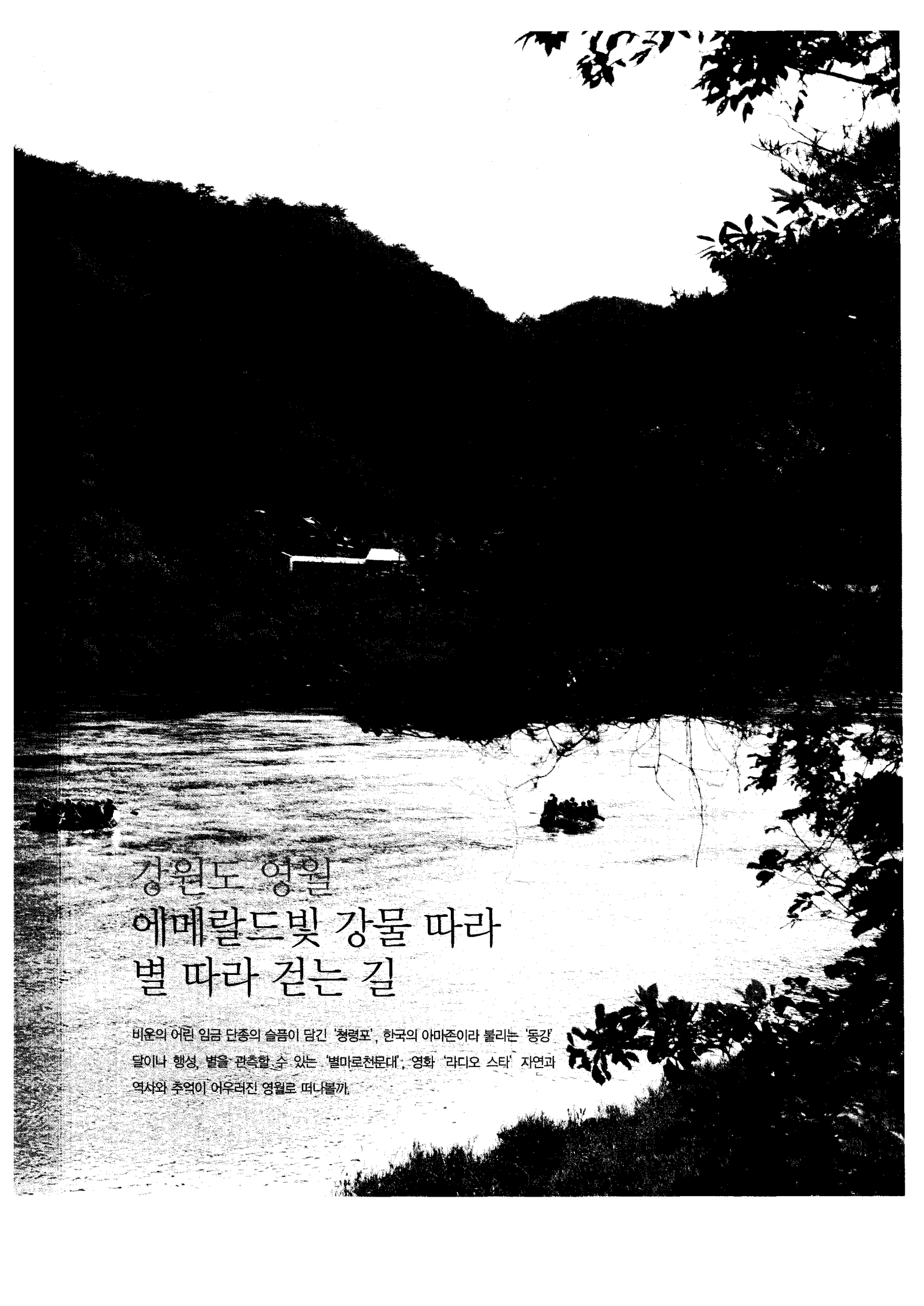


지해 깊어지는 건강

지도 밖에서 만나는 건강

콜 이유미 사진 엄성삼·영월군청 제공





강원도 영월 에메랄드빛 강물 따라 별 따라 걷는 길

비운의 어린 임금 단종의 슬픔이 담긴 '청령포', 한국의 아마존이라 불리는 '동강'
달이나 행성, 별을 관측할 수 있는 '별마로천문대', 영화 '라디오 스타' 자연과
역사와 추억이 어우러진 영월로 떠나볼까.



한양을 그리워했을 어린 왕의 슬픔이 담긴 곳 청령포

제천 방면에서 영월로 들어서기 전에 청령포가 있다. 단종의 유배지인 청령포는 남한강 상류의 지류인 서강이 곡류하여 반도모양의 지형을 이룬 곳으로 2008년 12월 국가지정 명승 50호로 지정되었다. 청령포는 숙부에게 왕위를 빼앗긴 소년 왕이 한양에 남겨둔 어린 부인을 그리워하다 끝끝내 검은 물을 마시고 울며 떠나야 했던 슬픔이 배어 있는 장소이다.

청령포는 꼬박없는 유배지였다. 깊은 강의 물줄기는 섬의 삼면을 가로막아 건너편으로 걸어 오가는 길을 모조리 막아버렸고, 섬의 뒤쪽은 육육봉(六六峰)이라고 불리는 험한 산줄기가 절벽을 만들어 나머지 한쪽마저 굳게 걸어 잠가 버렸다. 강 너머의 작은 땅이 바로 '섬 아닌 섬'인 청령포다. 이러한 지리적 여건으로 볼 때 이곳은 창살 없는 감옥인 유배지로는 아주 제격이었을 법하다.

지금은 이 유배지가 사람들로 북적인다. 서강의 물줄기가 영월을 빠져나갈 찰나 휘돌아 지나치는 작은 섬으로 에메랄드 빛깔의 강을 건너야 한다. 청령포 앞을 흐르는 강은 서강(西江)이다. 평창강이라고도 부르는 이 강은 청령포 바로 옆에서 동강과 어우러져 남한강의 상류를 이룬다.

모터보트 엔진을 붙인 작은 배를 타고 건너면 매일 한양을 그리워하다 울다 떠난 어린 왕이 갇혀 살던 작은 집이 나온다. 동쪽으로 몇 척 이상 남으로 몇 척 이상 벗어날 수 없다는 금표비의 엄포 아래 눈물 꽤 흘렸을 어린 왕을 생각하면 아름다운 풍경도 이내 쓸쓸하게 다가온다.

신선이 내려와 놀던 곳 어라연을 향해 걷는 길

영월읍내를 관통해 어라연으로 향한다. 동강의 많은 비경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곳으로 '고기가 비단결같이 떠오른 연못'이라는 뜻의 어라연은 동강의 상류로 신선이 내려와 놀았다는 전설이 있을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다. 선인들이 전하기를 "사람은 절경에 홀리고 비경에 몸을 던진다."라고 하듯이 천하절경을 본 사람은 많아도 천하비경을 본 사람은 많지 않다. 비경은 숨어 있어 속세인에게 그 모습을 보이지 않기 때문일까. 어라연은 동강 상류인 거운리에 위치하고 있다. 거운리에서부터 어라연계곡 트레킹이 시작되는데 2.5km를 걸어 올라가야 어라연을 만날 수 있다. 어라연계곡 트레킹은 에메랄드 빛깔의 물길을 따라 걷는다. 어라연 외에도 사람들은 이맘때부터 여름 내내 동강으로 몰려든다. 동강에서 즐기는 래프팅 때문이다. 동강에서 즐기는 래프팅 코스는 6km 당일 코스와 30km 풀코스가 있다. 굽이굽이 곳곳에 절경이 펼쳐진 동강은 급류가 잔잔해 강을 따라 래프팅을 즐기기에 그만이다.

어라연은 동강 상류인 거운리에 위치하고 있다. 거운리에서부터 어라연계곡 트레킹이 시작되는데 2.5km를 걸어 올라가야 어라연을 만날 수 있다. 어라연계곡 트레킹은 에메랄드 빛깔의 물길을 따라 걷는다. 어라연 외에도 사람들은 이맘때부터 여름 내내 동강으로 몰려든다.

1. 어라연은 동강인 상류인 거운리에 위치하고 있다. 사람들은 강가에 모여 각자의 방법으로 강을 즐긴다.
2. 작은 배를 타고 건너면 매일 한양을 그리워하다 울다 떠난 어린 왕이 갇혀 살던 작은 집이 나온다.

쏟아지는 별을 볼 수 있는 별마로천문대

별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영월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명소가 있다. 별마로천문대다. 별마로는 별과 정상할 때 우리말 '마루', 고요할 '로'의 합성어로 별을 보는 고요한 정상을 뜻한다. 영화 '라디오 스타' 촬영지이기도 한 별마로천문대는 봉래산 정상에 위치한다. 해발 800m 지점이어서 별자리 관측에 제격이다. 지름 80cm 주 망원경과 여러 대의 보조 망원경을 통해 별이나 달, 행성을 관측한다. 밤하늘을 수놓은 은하, 성단, 성운 등도 여기에서 관측할 수 있다. 내부 시설로는 천체투영실, 전문전시실, 시청각교재실, 관측실 등이 있다. 천문대에서 내려다보는 영월 읍내 야경은 특히 아름답다. 영월과 그를 감싸고 유유히 흘러 지나가는 동강과 서강, 작은 읍내, 영월의 모습을 살필 수 있다.

'라디오 스타'의 무대가 된 곳을 그대로 찾다

2006년 개봉한 영화 '라디오 스타'는 특별한 세트장 없이 영월을 배경으로 촬영됐다. 그래서 영월을 찾는 것은 영화 '라디오 스타'를 만나러 가는 것과 같다. 아직도 영월에는 영화의 흔적을 찾아오는 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고. 영월 곳곳엔 영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라디오 방송을 통해 외상값을 독촉하던 김양이 근무하던 '청록다방'은 영월 한복판에 그대로 자리한다. 청록다방과 멀지 않은 곳에 자리한 자장면 냄새가 코를 자극하는 중국집, 영화 속에 등장한 세탁소와 철물점, 순대국밥집, 그리고 영월을 찾은 여행객들이 묵는다는 모텔도 그대로다. 한편, 주인공 최근이 방송했던 옛 KBS 방송국은 2003년쯤 폐쇄돼 지금은 경비업체에서 시설물 관리만 하고 있다. '라디오 스타' 대부분이 이곳에서 촬영됐지만, 정작 방송국만 썰렁한 시설로 남아 있다.

영월의 건강식 메밀 막국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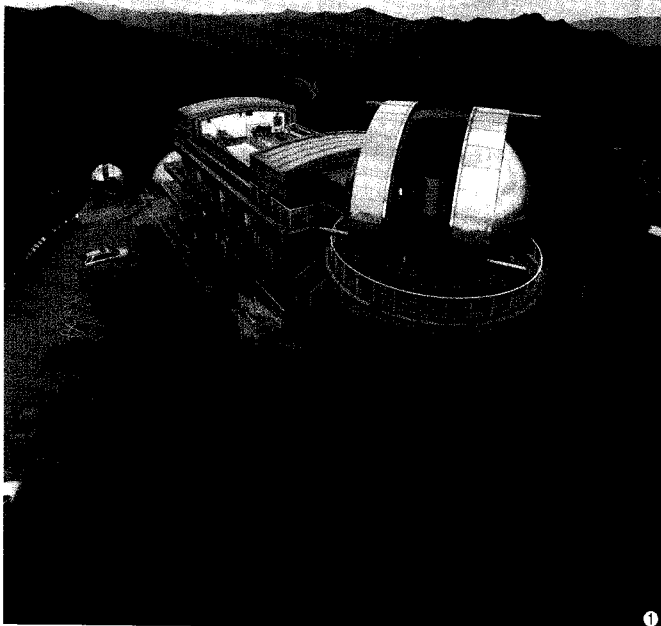
영월읍내 곳곳에 막국수 집들이 보인다. 막국수는 메밀로 만든 음식이다. 메밀을 뜨거운 물에 반죽해 면을 뽑아 만드는 막국수는 이름처럼 동치미면 동치미 김치면 김치 이것저것 아무렇게나 넣어 먹는 담백한 음식이다. 메밀에는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루틴이라는 성분이 있어 고혈압 환자에게 좋다. 루틴은 고혈압, 동맥경화증, 뇌출혈 예방, 폐출혈, 궤양성 질환, 동상, 치질, 감기치료에 효과적이다. 막국수의 생명은 아찔한 양념의 맛이 아닌 담백함이 생명이다. 영월의 건강식 메밀 막국수도 여행의 특별한 추억이 될 것이다. MEDY^{CHECK}



영월로 떠나보자 }

영월 가는 길 _ 중부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신갈, 호법분기점에서 영동고속도로를 타고 만종분기점까지 간다. 중앙고속도로를 타고 제천 나들목을 나와 38번 국도를 타고 가면 영월에 도착한다. 서울-영월 2시간 10분, 대전-영월 3시간, 부산-영월 3시간 30분, 광주-영월 4시간 30분, 대구-영월 2시간 10분, 강릉-영월 1시간 40분이 소요된다.

박물관이 지천에 널린 영월 _ 장릉, 고씨굴, 청령포, 동강 사진 박물관, 김삿갓 문학관, 별마로천문대, 동굴 생태관, 탄광 문화촌 등



1. 영화 '라디오 스타' 촬영지이기도 한 별마로천문대는 봉래산 정상에 위치한다.
2. 한양을 그리워하며 울던 어린왕이 간혀 살던 작은 집
3. 봉래산 꼭대기에서는 영월과 영월을 감싸고 있는 자연의 모습을 살필 수 있다.

